



발행인 김승택 원장직무대행  
편집인 성재민  
편집교정 정철

자료문의 KLI 학술출판팀  
주소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한국노동연구원  
TEL 044-287-6088  
FAX 044-287-6089

발행일 2017년 12월 6일

## 2017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8년 고용전망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044-287-6605(hsjung@kli.re.kr)

수출호전과 민간소비 개선 등 경기회복에 따라 2017년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1~10월 기준)대비 330천 명 증가하였고,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한 60.7%, 실업률은 전년과 동일한 3.8%를 기록하였다. 다만, 2017년 내내 20대는 고용률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10%대에 달하는 등 아직까지 청년 신규 채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2017년에도 지속되어 50대 후반에서 60세 초반 연령층 취업자 증가가 사실상 취업자 수 증가 전체를 이끌고 있다. 내년에는 올해 큰 취업자 증가를 보인 건설업은 둔화되고, 대신 수출과 생산증가에 힘입어 제조업과 연관업종, 민간소비 개선에 따라 서비스업의 취업자 수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호전에 따라 노동시장에도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것이지만, 고령화에 따라 15~64세 인구 증가폭이 급격히 둔화되는 추세를 감안할 때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다소 낮은 29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I. 2017년 노동시장 개관

2017년 1~10월 취업자 수는 수출호전에 따른 제조업 고용증가 전환 등 경기회복 신호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330천 명 증가해 2016년보다는 호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3분기 279천 명(10월 279천 명 ↑) 증가해 최근 들어 취업자 수 증가폭 개선 추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둔화된 8~10월에도 15~64세 고용률은 전년동기대비

0.5%p 증가한 66.9%로 나타나, 구조조정이 한창이던 2016년 동기간 전년동기대비 0.3%p 증가했던 것에 비하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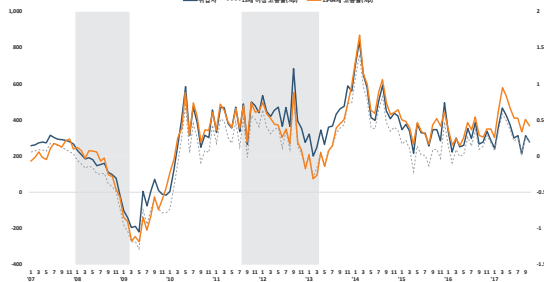
실업률은 1~10월 평균 기준 전년과 동일한 3.8%이지만, 3분기에는 0.1%p 감소한 3.5%, 10월에는 0.2%p 하락한 3.2%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10.0%로 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라 2017년  
1~10월 취업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330천 명 증가

[그림 1] 취업자 수 및 고용률 증감 추이

(단위: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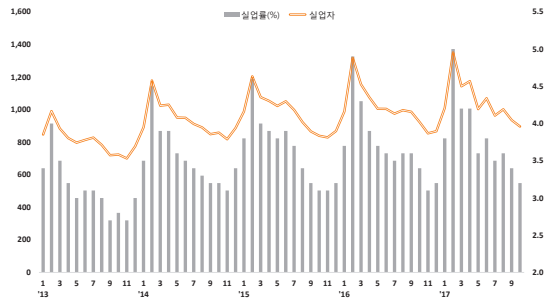
20대 고용률 감소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2] 실업자(좌축) 및 실업률(우축) 변화 추이

(단위: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14. 1~10	2015. 1~10	2016. 1~10	2017. 1~10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42,474 (1.0)	42,981 (1.2)	43,389 (0.9)	43,730 (0.8)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26,538 (2.7)	26,912 (1.4)	27,249 (1.2)	27,590 (1.3)
	취업자 (증가율)	25,584 (2.2)	25,910 (1.3)	26,206 (1.1)	26,536 (1.3)
	(증가수)	(554)	(326)	(296)	(330)
	참가율 (남성)	62.5 (74.1)	62.6 (73.9)	62.8 (73.9)	63.1 (73.9)
	(여성)	(51.4)	(51.8)	(52.1)	(52.6)
	고용률 (남성)	60.2 (71.4)	60.3 (71.1)	60.4 (71.0)	60.7 (71.0)
	(여성)	(49.6)	(49.9)	(50.2)	(50.7)
	실업자	953	1,002	1,042	1,054
	실업률 (남성)	3.6 (3.6)	3.7 (3.8)	3.8 (3.9)	3.8 (3.9)
(여성)	(3.6)	(3.7)	(3.7)	(3.7)	
비경활 (증가율)	15,936 (-1.7)	16,069 (0.8)	16,140 (0.4)	16,139 (0.0)	
15~64세	생산가능인구 (증가율)	35,941 (0.9)	36,091 (0.4)	36,335 (0.7)	36,481 (0.4)
	참가율 (남성)	67.8 (78.6)	68.3 (78.7)	68.7 (78.9)	69.3 (79.3)
	(여성)	(57.0)	(57.8)	(58.3)	(59.1)
	고용률 (남성)	65.3 (75.7)	65.7 (75.7)	66.0 (75.7)	66.6 (76.1)
(여성)	(54.9)	(55.6)	(56.1)	(56.9)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II. 2017년 노동시장 부문별 평가

1. 20대 청년층 고용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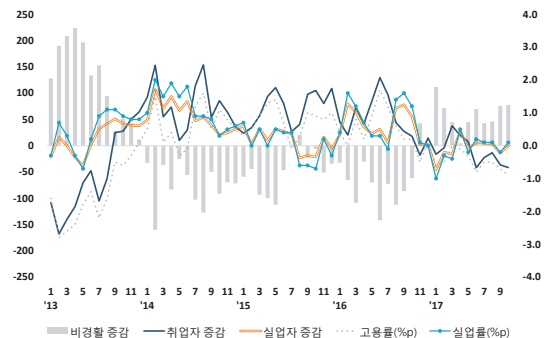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올해 꾸준히 상승했으나, 이는 20세 미만층에서 고용률이 소폭 상승해 나타난 현상으로 20대는 고용률이 내내 감소했다.

19~29세에 국한해 살펴보면, 고용률은 2017년 1~10월 평균으로는 전년 대비 0.5%p 감소한 55.7%(3분기 56.4%, 10월 55.4%), 실업률도 1~10월 전년 동기보다 0.1%p 감소하긴 하였으나 평균 10.0%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교육수준별로 보면 고졸과 전문대졸의 고용률이 하락했으며, 4년제 대졸자 고용률은 증가하였다. 4년제 대졸자 고용률 증가는 지난해 감소했던 기저의 반영으로도 볼 수 있어 연말과 내년 초까지 지켜봐야 신규 채용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신호인지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특성화고 졸업생 중심으로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지난 몇 년간 이들 학력층을 많이 흡수해왔던 제조업(생산직)과 음식·숙박업이 구조조정, 내수침체 등으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고용률이 하락하였다.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도 제조업(주로 생산직) 위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무상보육 확대를 계기로 여성 전문대졸자 보육교사 진입이 크게 늘었는데, 어린이집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면서 최근 2년간 고용성장이 멈춘 것도 전문대졸 고용률 감소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그림 3] 청년층(19~29세)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좌축) 및 고용률, 실업률 증감(우축) 추이

(단위: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고졸과 전문대졸 고용률 하락, 4년제 대졸자 고용률 증가

## 2. 30대 후반 기혼여성 고용률 2016년 이래 꾸준히 증가

노동시장 진입 기간이 길어지면서 30대 초반까지 노동시장 진입연령대가 볼 수 있는 상황인데, 20대와 마찬가지로 경기회복이 아직까지 신규채용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어 30대 초반 남성과 미혼 여성의 고용률은 감소했다. 반면 30대 초반 기혼여성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온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어 고용률이 상승했다.

3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상승한 가운데, 30대 후반 기혼 여성 고용률이 2016년 1분기 이래 증가추세가 지속되는 특징이 나타나고 있다. 혼인과 자녀출산으로 나타나는 M커브의 저점이 30대 후반으로 이동하면서 이 연령대 기혼여성 고용률이 몇 년째 하락하거나 정체된 상태를 유지해온 가운데 나타난 상승추세이기 때문에 30대 초반 기혼여성처럼 고용률 증가가 지속될지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남성 40대 고용률은 2017년 1~10월 평균 92.6%로 전년동기에 비해 0.3%p 상승하였으며, 여성 40대 고

용률도 65.9%로 전년동기에 비해 0.1%p 상승하였다. 다만, 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은 만혼화, 늦은 출산의 영향을 크게 받아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으며, 40대 후반 여성 고용률은 경력단절 후 복귀 등 여성 경제활동 활성화의 영향으로 동기간 꾸준히 상승세에 있었고, 올해도 그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경제활동이 여전히 활발한 베이비부머

50대 후반 60세 초반 연령층 취업자는 325천 명 증가(3분기 289천 명, 10월 301천 명)하여 사실상 취업자 수 증가 전체를 이끌고 있다. 이 연령대에 위치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50대 후반 취업자는 주로 제조업(1~10월 평균 전년동기대비 37천 명 증가)과 도소매업(27천 명 증가), 부동산 및 임대업(17천 명 증가), 건설업(12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으며, 60대 초반은 농림어업(12천 명 증가), 건설업(41천 명 증가), 보건 및 사회복지업(20천 명 증가)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 4. 상용직 중심 고용증가

구조조정과 경기둔화 영향으로 2016년 하반기 크게 둔화되었던 상용직 증가폭은 2017년 들어 점차 커지고 있다(1분기 322천 명 ↑, 2분기 338천 명 ↑, 3분기 408천 명). 임금근로 일자리가 위축되면 소득이 필요한 사람들이 자영업 창업으로 내몰리거나 한계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지연해 자영업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나타난 자영업 증가가 바로 이런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올해 들어 자영업 증가폭은 1분기 17만 명 증가로 정점을 찍은 이후 경기가 회복국면에 접어들면서 둔화되었으나, 아직까지 감소 전환되지는 않고 있는 상태이다(3분기 31천 명 증가). 아마도 내수 성장이 더뎠던 임금 근로 일자리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대 기혼여성 경제활동 활발

55~64세 연령층에서 취업자 수 증가를 이끌고 있음

〈표 2〉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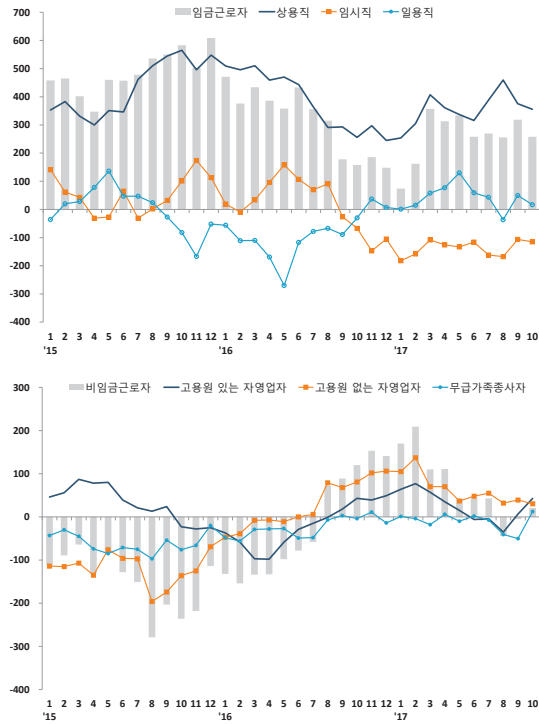
	전체			남성(여성)		
	2015. 1~10	2016. 1~10	2017. 1~10	2015. 1~10	2016. 1~10	2017. 1~10
전체	60.3	60.4	60.7	71.1(49.9)	71.0(50.2)	71.0(50.7)
15~19세	7.9	8.0	8.7	7.0( 8.9)	7.3( 8.7)	7.9( 9.5)
20대	57.9	58.4	57.9	56.4(59.3)	57.0(59.8)	55.9(59.9)
20~24세	46.2	46.1	45.6	40.9(50.8)	40.8(50.7)	40.3(50.0)
25~29세	68.8	69.8	68.8	69.3(68.3)	70.1(69.4)	67.8(69.9)
30대	74.1	74.5	75.2	90.9(56.7)	90.1(58.2)	90.1(59.4)
30~34세	75.2	74.6	74.8	90.0(59.7)	88.4(59.9)	87.3(61.2)
35~39세	73.1	74.4	75.6	91.8(53.9)	91.7(56.5)	92.7(57.9)
40대	79.0	79.2	79.3	92.2(65.6)	92.3(65.8)	92.6(65.9)
50대	74.3	74.3	75.3	86.8(61.8)	86.8(61.7)	87.6(62.8)
50~54세	77.8	77.6	78.1	89.5(65.9)	89.2(65.7)	89.7(66.3)
55~59세	70.5	70.8	72.4	83.9(57.2)	84.2(57.5)	85.6(59.5)
60~64세	59.5	59.4	60.7	72.2(47.4)	71.2(48.1)	73.5(48.3)
65세 이상	30.8	30.9	30.8	41.3(23.2)	41.3(23.3)	40.4(23.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017년 들어 상용직 증가폭 확대

[그림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2분기 들어 감소하는 듯 했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를 이어가고 있는데, 건설업 경기가 좋았던 데에 힘입어 부동산업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음식숙박업에서도 증가하고 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음식숙박업, 농림어업에서 증가했으며, 건설업에서도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보인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주로 55~64세, 농림어업이 많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5세 이상 고연령층에서 증가가 이어지고 있다.

### 5. 제조업 고용 완만히 회복

지난해 구조조정으로 2016년 하반기 들어 제조업에서 취업자 수가 크게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2017년 들어 해외시장여건이 좋아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생산도 활발해진 영향으로 3분기부터 취업자 수가 증가 전환(31천 명)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업 취업자 증가는 상용직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3분기 105천 명). 30, 40대 제조업 고용은 여전히 감소하는 한편, 50세 이상은 66천 명 증가했다. 조선업 구조조정과 같은 외부적 충격에 영향을 받았던 산업들의 주된 고용 연령대가 30, 40대<sup>1)</sup>인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기타운송장비 제조업)은 고용보험 행정통계<sup>2)</sup>로 볼 때 2017년 10월에도 전년동월보다 피보험자가 42천 명 적게 나타났으나, 대형사업장 위주로 감소폭이 줄어드는 중이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는 사업체노동력조사(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종사자 수가 3분기에도 전년동월대비 22천 명 정도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제유가변동 등에 따라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생산(3.4%)과 수출(5.9%)이 동반 증가하였고,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은 기타 기계 및 장비(16.5%), 자동차 및 트레일러(2.7%)의 생산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화학제품 업종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꾸준히 증가(3분기 6천 명, 10월 5천 명)하고 있으며, 기계장비 분야는 10월 14천 명 피보험자 증가하였다.

2017년 들어 반도체 수출이 수출물량지수 기준 1~9월 평균 4.5% 증가, 금액기준 18.5% 증가하는 호황 국면이다. 반도체 투자도 126.9% 급증<sup>3)</sup>했고 전체 설비투자가 1~9월 평균 18.7% 증가하면서 향후 반도체 관련 기계, 전자부품 관련 제조업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만, 낮은 제조업 평균가동률(1~9월 평균 71.8)이 유지되고 있으며 늘어난 설비투자의 77.2%가 반도체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 고용 개선의 폭이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6.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둔화

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 들어 둔화하는 모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제조업 고용은 구조조정 영향에서 벗어나

1)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으로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취업자 중 30대 30.4%(58천 명), 40대 30.4%(58천 명)임.  
2) 고용노동부, 「고용행정 통계로 본 '17.10월 노동시장 동향, 보도자료」.  
3) 한국은행(2017.10), 「경제전망보고서」.

〈표 3〉 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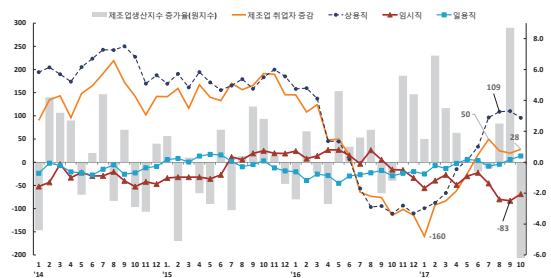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취업자 전체	533	337	299	326	296	330
농림어업	-68	-107	-59	-109	-71	3
제조업	146	156	-5	154	16	-28
건설업	42	27	22	36	7	123
서비스업	424	250	338	236	341	232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5〉 제조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자수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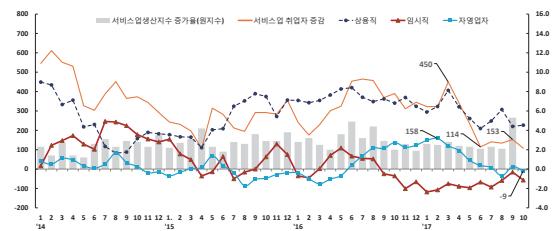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광업·제조업동향조사」, KOSIS.

습을 보이고 있다. 2017년 10월에는 전년동월비 108천 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서비스업이 건설업과 함께 제조업 고용감소에 따른 노동시장 충격을 완충하는 역할을 했으나, 2017년에는 내수소비(2.6% 증가)의 완만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고용은 둔화된 것이다. 이와 같은 둔화에는 지난해 서비스업 취업자가 급증했던 기저효과(특히 3분기)와 함께, 내수 회복속도가 빠르지 않아 서비스업 자영업자 둔화 속도(2분기 53천 명 증가, 3분기 5천 명 감소)를 임금 근로자 증가 속도(2분기 179천 명 증가, 3분기 176천 명 증가)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부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 도매 및 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순으로 취업자 수가 늘었다. 보건·사회복지업(64천 명 증가)은 여성(92천 명 증가), 50대 이상(62천 명 증가) 위주로 꾸준한 취업자 증가를 보이고 있다. 고령화에 따라 보건업 및 사회복지업의 수요가 꾸준하고, 간호사, 복지업의 사회복지관련 종사자가 포함된 전문가 직종(58천 명)의 고용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그림 6〉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자수증가율(우축)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표 4〉 서비스업 세부산업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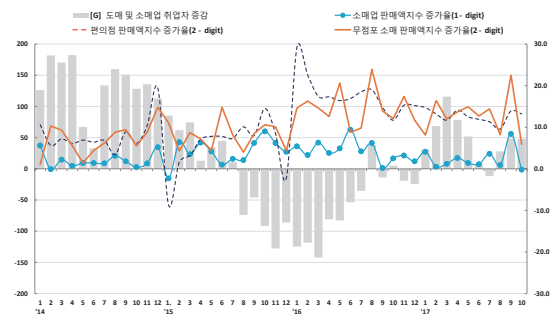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서비스업	424	250	338	236	341	232
도매 및 소매업	132	-8	-54	11	-61	47
운수업	-6	2	3	2	5	-25
숙박 및 음식점업	127	81	98	82	99	11
출판·영상·방송 등	22	58	14	57	11	1
금융 및 보험업	-26	-48	7	-55	6	-15
부동산 및 임대업	22	27	36	23	36	50
전문·과학 등	3	23	54	17	60	-10
사업시설관리 등	7	68	44	69	47	-4
공공행정·국방 등	-8	-21	57	-37	62	46
교육서비스업	59	11	28	11	23	60
보건·사회복지 등	139	77	82	79	82	64
예술·스포츠 등	1	31	-18	36	-25	21
협회 및 단체, 수리	-13	-22	-5	-31	1	-3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업태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불변지수, 2010=100)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_\_\_\_\_,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내수 개선 속도가 완만해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폭 작아

편의점, 슈퍼마켓, 기타상품전문소매업 중심으로 도소매업 취업자 수 증가

서비스업 내에서 가장 다수의 취업자가 분포한 도소매업에서는 2017년 1~10월 평균 47천 명의 취업자가 증가했다. 2016년 1~10월 61천 명 감소했던 것에서 회복된 모습인데, 상용직(84천 명), 1~9인 소규모 사업체(46천 명)에서 주로 증가했다. 불변지수(2010=100) 기준으로 편의점(12.5%), 무점포소매점(13.6%)을 중심으로 소매 판매액 지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준으로 볼 때 최근 몇 년간 출점이 확대되고 있는 미용 및 건강관련 유통체인과 애견용품숍을 포함하는 기타상품전문소매업에서 고용이 증가한 영향이다. 1인 가구 증가로 집 근처 소비가 트렌드이며, 미용 및 건강 유통체인, 애견용품 모두 트렌드라는 점에서 고용증가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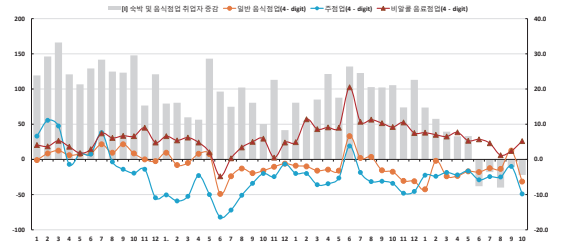
그동안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를 이끌던 숙박 및 음식점업은 취업자 증가폭이 2016년 말부터 경기침체 영향으로 둔화추세에 들어갔고, 최근 들어 감소 전환된 상태이다(6월 34천 명 감소 전환, 10월 18천 명 감소). 숙박업은 취업자 규모가 작아 이 업종의 고용흐름은 음식점업에 의해 좌우되는데, 지난 몇 년간 음식업 고용증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비알콜·음료점업의 생산 증가세가 2016년 6월을 정점으로 꾸준히 둔화되었으며, 일반 음식점업 생산 증가율은 감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이 산업으로 대거 흡수되고 있던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하고 있다. 아직까지 내수회복속도가 완만하고, 생산지수가 9월에 다소 상승하긴 했지만, 상승 추세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금융위기 이후 음식업 고용성장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닌데, 개인의 만족을 위한 소비 트렌드와 맞물린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해 맞벌이화도 외식업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내수회복만 되면 내년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는 고용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증가폭 꾸준히 둔화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2017년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서 음식점업과 함께 서비스업 취업자 수 둔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업종에는 연구소, 대기

[그림 8]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 산업별 생산증가율 (불변지수, 2010=100)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표 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특징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14	2015	2016	2015. 1~10	2016. 1~10	2017. 1~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취업자 증감	3	23	54	17	60	-10	
종사상 지위별	상용직	-15	15	68	7	76	-18
	임시직	0	7	-4	7	-4	-6
사업체 규모별	1~4인	25	-1	-21	2	-23	18
	5~9인	-13	10	3	8	7	7
	10~29인	-20	-12	28	-17	27	6
	30~99인	4	4	14	8	6	23
	100~299인	14	20	5	18	8	-27
	300인 이상	-7	2	25	-2	36	-37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업 본사, 건설 관련 엔지니어링 산업, 디자인과 기획사 매니저 등이 포함되는데, 건설관련 엔지니어링 산업은 고용이 증가<sup>4)</sup>한 반면, 주로 고용규모가 큰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고용이 감소(-64천 명)한 것으로 보아 제조업 관련 대기업 본사 부문에서 고용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업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업 고용이 예상대로 향후 꾸준히 증가하면 이 산업의 고용도 함께 증가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며, 전체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개선될 것이다.

7. 정점에 다다른 건설업 고용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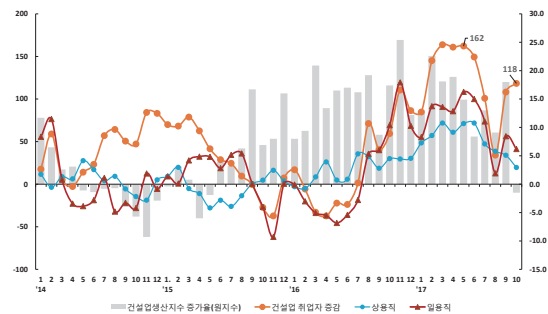
건설업 고용은 2016년 7월 증가 전환 후 그 폭이 확대되면서 2017년 3월에는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전

4) 사업체노동력조사 기준으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서비스업 종사자 수 전체(자영업자 제외) 2017년 1~9월 평균 6천 명 증가

년동월대비 164천 명 증가를 보였고, 1~10월 평균으로는 123천 명 증가를 나타내며 2017년 전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3분기 들어 증가세가 소폭 둔화된 양상(81천 명)이다. 종사상 지위로 보면 상용직과 일용직 증가폭이 컸으며 상용직(52천 명 증가)에서는 전문가(11천 명), 사무종사자(11천 명), 기능원 및 장치기계조작(32천 명) 등 대부분의 직종에서 고용증가가 나타났고, 일용직(72천 명)에서는 단순노무종사자(51천 명) 중심으로 증가했다.

### [그림 9] 건설업 취업자 증감(좌축)·생산증가율(우축) 추이

(단위:천 명,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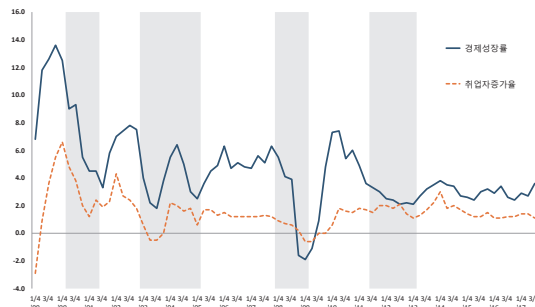
건설업의 생산지수는 상반기보다는 다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은행의 건설투자 전망<sup>5)</sup>도 2017년 연간 6.9% 증가에서 2018년 연간 0.2% 증가로 크게 둔화되는 흐름이어서 향후 건설업 고용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III. 2018년 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연간) 전망치를 1월에는 2.5%, 4월 2.6%로, 7월 2.8%, 가장 최근인 10월에는 3.0%로 점차 상향조정하여 발표하였다. 대외 경제 여건이 비교적 양호하고 세계교역이 1~7월 중 4.2% 증가하는 뚜렷한 회복세(최근 5년 평균 2.3%)를 보인다는 점 등이 국내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 때문이다.

### [그림 10] 경제성장률과 취업자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음영은 경기수축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의 경제전망에 근거해 내년도 취업자 수를 전망하면, 2018년 취업자는 약 29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보다 소폭 둔화된 취업자 증가폭이다. 경제는 올해보다 0.1%p 낮은 2.9% 성장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15~64세 인구 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감소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보다 커지기는 어려운 인구 변동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구 제약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구조적 제약요인이다. 이로 인해 개선되는 경기흐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증가폭이 크지 않겠지만, 경제

건설업 고용 증가폭은 점점  
둔화될 것으로 예상

내년 양호한 경기 흐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수는 인구변화  
영향으로 약 296천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표 6> 한국노동연구원 2017년 하반기, 2018년 고용지표 전망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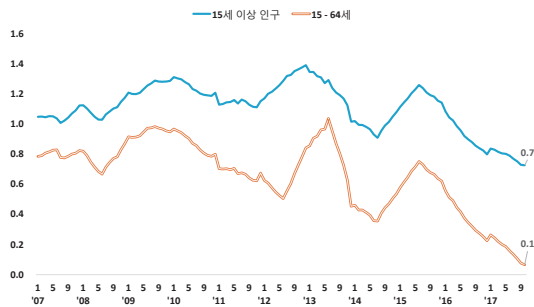
	2017			2018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8	3.2	3.0	2.9	3.0	2.9
15세 이상 인구	43,683	43,820	43,751	43,982	44,110	44,046
경제활동인구	27,459	27,706	27,582	27,754	28,007	27,881
경제활동참가율	62.9	63.2	63.0	63.1	63.5	63.3
취업자	26,335	26,783	26,559	26,622	27,089	26,855
(증가율)	1.4	1.1	1.2	1.1	1.1	1.1
(증감수)	364	283	324	287	305	296
실업자	1,125	922	1,023	1,132	918	1,025
실업률	4.1	3.3	3.7	4.1	3.3	3.7
고용률	60.3	61.1	60.7	60.5	61.4	61
비경제활동인구	16,224	16,115	16,169	16,228	16,103	16,165

주: p는 전망치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고용지표는 동향분석실 전망치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호; 한국은행, 「2017~18 경제전망」, 보도자료.

5) 한국은행(2017.10), 「경제전망보고서」.

[그림 11] 15세 이상 인구 및 15~64세 인구증가율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 연도.

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2017년 대비 각각 0.3%p씩 증가한 63.3%와 61.0%로 전망되어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인구변화라는 제약요인을 감안하면 이와 같은 내년도 취업자 수 전망치는 개선된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유가 인상 흐름이나 금리인상(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소비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내수 서비스 산업에서 고용증가는 신규 출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금리인상 수준에 따라서는 다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은 지켜보아야 할 하향 요인이다. 앞서 언급한 여러 취업자 수 증가 요인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는 우연이 겹친다면 이보다 상향되어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2017년에는 여성과 베이비붐(대략 55~65세) 세대의 활발한 노동시장 참여가 지속되었다.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공급의 근본적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단계를 향해가고 있기 때문에, 경제활동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인구집단의 노동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정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노동공급 유인 대책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청년 채용이 개선되는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용률은 담보상태이고, 실업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경기적 요인에 더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근로조건 격차가 너무 커 좋은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내년에는 청년이 주로 흡수되는 제조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음식업 고용이 좀 더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경기적 요인은 개선되었지만, 구조적 요인은 그대로여서 체감은 여전히 그리 좋지 않을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구직활동 기간 일정액의 소득지원을 통해 보다 질 높은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장적으로 개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자리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정거래 촉진, 대중소기업간 성과공유제 같은 경제주체들의 자발적인 격차 해소 노력이 활성화되도록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겠다.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다. 우리나라가 OECD 최고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을 보이며, 그간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가 경제적, 사회적 문제로 부상해 왔고, 이로 인해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궤도에 들어선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의 인상률이어서 일자리 질이나 소득 개선에는 긍정적이지만, 고용량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으며, 더 나아가 고용보험 가입 조건 및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포함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을 결합해 저임금 부문의 사회적 보호 수준을 개선하는 대책까지 함께 내놓은 상태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둔다면 고용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해소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높여 소득개선에 기여하는 한편, 사업주 지원을 통해 노동수요도 지지하면서 그간 저임금 부문의 최대 문제로 꼽혀 왔던 낮은 사회적 보호수준(실업급여, 연금 같은)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광범한 저임금 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임금보조 프로그램의 집행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실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하는 등 안착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 본 「KLI 고용·노동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밝힌다.